

##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만물에 앞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 곧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왕권과 주권과 권세와 세력의 여러 천신들과 같은 -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모두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만물은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분은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 분으로 말미암아 존속합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당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신 최초의 분이시며 만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완전한 본질을 그리스도에게 기꺼이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만물을 당신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죽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를 통해서 평화를 이룩하신 것입니다. (골로새 1:15-20)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탄생이 지니는 시대적인 의의를 해설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했으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완전한 본질을 그리스도에게 기꺼이 주시고 하늘과 땅의 만물을 자기와 화해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천 년 동안 이천 번이나 성탄을 지키면서 같은 말

같은 노래로써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것을 성탄 때마다 전했거늘,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지상에는 전쟁·분쟁·유혈의 싸움이 그치지 않고 있으며 이 시간에도 불법자들의 억압은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친구교 싸움, 중동에서의 종교 전쟁, 아프리카의 독립 전쟁, 여기 저기서 벌어지는 폭력과 긴장이 여전히 만연되고 있는 이때, 우리는 또 다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하고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 남편, 내 자식들이 옥중에서 신음하고 불안과 공포가 땅 위를 뒤덮고 있는데, 우리는 승리의 소망, 사랑과 평화를 말하지 않으면 안될까?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성탄이 지니는 의미를 되새겨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의 해방과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의 해방을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애굽에서부터의 탈출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의 생활을 하다가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향해 진군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자유를 구가하면서 가나안 복지를 향했지만, 저들은 그 자유를 남용하고 오용해서 해방의 본래의 뜻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 공동체로서 애굽을 나온 후, 저들의 안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긴급조치를 선포했습니다. 열 가지가 되는 긴급조치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너희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나 아론의 금송아지는 이러한 계명에 대한 반역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이 조치를 어기고 나갔습니다. 에돔과 모압 족속들의 침공을 물리치면서도 이스라엘은 바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방 신에게

굴복하고 그를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도자들은 수많은 정력을 기울여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에 의해서만 잃었던 조국을 회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빌론에 잡혀서 갖은 민족적인 곤욕을 당하고 나서 성전을 고치고 새 계약을 선포해서 이스라엘 민족 중흥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 중흥의 꿈도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거대한 힘 앞에 여지없이 그 민족의 주체성을 짓밟아버린 이스라엘은 이제는 자나 깨나 이 민족을 억압의 광대한 힘에서 건져내줄 것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호세아 등 쟁쟁한 예언자들은 앞으로 다가올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쉬지 않고 경고하며 비판하고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목이 곧고 완악한 백성들은 끝까지 이방신에게 복종하고 만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바알신을 섬기고 탐욕과 이기심, 분쟁과 파벌로써, 서로 혈투는 생활을 해 나가는 동안에 나라는 여지없이 강대국에 강탈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때 베들레헬, 어떤 허술한 여관집 말구유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신 것입니다. 신기한 별이 하늘에서 반짝이고 동방 박사들이 귀한 선물을 가져다 바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이처럼 아름다운 광경이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 종교에 이처럼 사실적이며 사람의 가슴을 흔드는 이야기가 있을까? 이 세상의 혼탁에서 순결함을 잃지 않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탄생하게 된 예수님의 이야기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는 결코 마냥 아름답기만한 것도 아닙니다. 처참한 대전쟁이 벌어질 예정이 있는 것입니다. 벌써 빌라도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예비하는 그림자가 이 어린 아기 예수에게 찾아

들었던 것입니다. 헤롯의 적개심, 그리고 유대교 안에서 들려오는 불길한 소문들이 이제 비로소 하늘의 천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령과 악령의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탄생의 사건이야말로 하늘의 악령과 하나님의 영광의 최후 결전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사탄이 하늘에 있는 악한 천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으로 인간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헤롯이나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존재가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졌던 것과는 전혀다른 차원에서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순히 경건한 존재로서 존경받는 자들이 아니라 사탄의 앞잡이가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사탄과 악마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의 모습을 띄고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과 동시에 사탄의 존재는 한층 더 현실적이 된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것을 구약에서는 타락한 천사라고 했습니다. 악마란 그리이스 말로는 Diabolos라 하는데 혼란이라는 뜻을 가진 Diabollein에서 나온 말입니다. Diabollein은 「혼란에 빠지게 하다」「분열시키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욱기를 보면 여기서 사탄은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두 가지 방법으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겁을 고발하는 방법이고 둘째로는 유혹의 방법입니다. 이리하여 사탄은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심판대에 앉아서 고발을 하며 천상 공판정에서 검사의 직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욕기에서는 먼저 욱을 고발하는데 욱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충성을 하고 선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할 존재라고 사탄은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역의 사탄

은 사실여부를 가려 읊이 실제로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해석  
고발한 것은 아니고 한 번 그를 시험해 보자고 합니다. 그렇  
기 때문에 사탄은 고발자인 동시에 유혹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그의 복음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금  
식하시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탄과의 대전을 먼저 치루  
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선교 시에 언제나 마주치는 것  
이 사탄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탄과의 대  
결이 연속된 삶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탄생한 시기인 동시에 사  
탄의 활동이 시작된 시기입니다. 빛과 어둠의 세력이 서로  
얼굴을 마주 쳐다보기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이제부터는 우  
리가 사탄을 마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어떤 중  
립적인 입장에서는, 다시 말하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입장에서는 사탄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  
에서 그의 의로우심을 믿고 그의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만 사탄의 얼굴이 보입니다. 이러  
한 결단을 한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친구, 가족들, 심지어 자  
신의 모습에서조차 사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도 자  
기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서 사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찾아가 십자가를 지게 된 줄 알게 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했을 때,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탄을 어느 먼 곳에서 찾아서는 안됩니다.  
사탄의 유혹은 온종일 내 마음 속에서 내 이웃에게서 활동하  
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결단을 한 사람들  
은 사탄과의 숨바꼭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찾  
아내려야 하고 그에게 쫓겨 숨어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추적해 가는 것이며 여기에 빛의 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 보이는 것은 물론이요 왕권과 주권과 권세와 세력까지도 모두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시작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 그리고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과 자신의 화해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사탄의 어둠의 세력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에게 이러한 최후의 승리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크리스마스는 실패의 시작이요 성탄 예배는 패자들의 축전이 되고 맙니다. 아니 패자들의 축전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의 푸닥거리가 되고 맙니다.

1976년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는 오늘 아침 다시 한 번, 이 승리의 확신과 소망을 다짐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다시 한 번 음미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하나님께 적의를 품고 사악한 행동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몸을 희생시켜서 여러분과 화해하시고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없고 탕할 바 없는 사람으로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인 기쁜 소식의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 기쁜 소식은 하늘 아래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었고 나 바울은 그 소식을 전하는 일꾼입니다」(골로새 1:21-23)

우리 다 함께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성탄의 참뜻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1976. 12. 25 한빛교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63